

## 사업참여자 피해 예방 방안



**1** 원금 보장 · 고수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귀농자금 대출 유도 등 광고를 조심하세요!



**2**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비교해보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 · 컨설팅을 받으세요!



**3**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 후 대출 신청하세요!

##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사업참여자

피해 사례를 인지한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 금융기관에 자금집행 중지 신청

지자체

관련 사실 확인 후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공유

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 상담 운영 시 공지·안내 및 주무부처 보고

농식품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전파

## 정부 대응 노력

정부는 귀농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1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강화

- 선정심사를 대면방식으로 실시하여 철저한 사업 내용 검증 및 예산 적정성 검토
- 정량지표 비중 축소 및 정성지표 비중 확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기능 강화

### 2 귀농자금 신청서 접수 - 심사 - 대출 소과정에서 피해사례 고지

- 각 시·군, 농신보, 농협 등 귀농인 접점에서 의무적으로 관련사례 고지
- 유사피해 사례 발생 시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성있게 관련 정보 제공

### 3 귀농·귀촌법 개정을 통해 귀농자금 부정수급금 환수, 부정수급자 및 방조자 처벌근거 마련

## 유관기관 정보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39, 1540)
- 귀농귀촌 종합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귀농자금 신청 및 승인 | 각 시·군 지자체
- 귀농자금 대출 시행 | 각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영업점

# 귀농귀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유형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재료 제공,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



애견 브리딩·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시설·사료 등 판매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 피해 사례

### 사례 3 묘목상형

C법인은 “호두나무 성목 한그루면 약 40kg의 알호두를 수확해 연간 60~8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2,000만원을 투자해 임야를 구입하고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으면 10년 후 부터는 연간 3,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호두나무가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데 비해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고수의 광고만 믿고 투자한 예비귀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

### 사례 4 애견브리딩형

D업체는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서 수매하겠다는 ‘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며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과 다른 조건의 견사 건축 등에서 발생한 피해 및 사업실패로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됨.

### 사례 1 기획부동산형

귀농귀촌 프로그램 강의 이력, 수상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뢰를 산 A분양업체가 영농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겠다고 1,300명의 투자자를 모집.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2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속여 총 124억원을 투자받아 그 중 27억원을 가로챈.

### 사례 2 영농조합법인형

B영농조합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그럴듯한 작물, 농장으로 홍보함. 전문가의 밀착지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의 초기용화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공동 목표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끼리의 동질감을 형성시킴.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을 완료하고 돈만 받아 책임을 회피함.

### 사례 5 곤충산업형

E법인은 “원금 100% 보장, 고수의 귀뚜라미 사업”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하고,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크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대체 식량”이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또한,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 201억원을 가로챈.